

제 11회 유심작품상 최동호·박현수 교수

시 부문 수상작

히말라야의 독수리들

최동호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전설의 독수리들은

먹이를 찢는 부리가 약해지면

설산의 절벽에 머리를 부딪쳐

조각난 부리를 떨쳐버리고 다시 솟구쳐 오르는

강한 힘을 얻는다고 한다.

백지의 눈보라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언어가

펜 끝에 머물러, 눈 감고 있을 때

설산에 머리를 부딪쳐 피에 물든 독수리의
두개골이 떠오른다.

- 2012년 가을 <문학 마당>

8월 중 만해마을서 시상식

(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제11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최동호 고려대 교수, 학술부문에 박현수 경북대 교수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최동호 교수는 '문학마당' 2012년 가을호에 발표된 '히말라야의 독수리들'로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히말라야의 독수리들'은 우리의 시 쓰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시로 유달리 눈에 띄었다. 명징성, 단순성, 견고성을 갖춘 극서정시야 말로 우리 시가 빠져 있는 미망(迷妄)을 헤쳐 나갈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동호 시인의 대안 제시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이번 유심문학상 수상은 조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둠에 잠긴 새벽 설악산을 향해 앞뒤로 절하고 면목을 일신하여 앞으로 용맹정진하리라 결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인 박현수 교수는 한국현대문학연구 38집에 발표한 '심현담주해의 언어관과 한용운의 시론'으로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



시 부문 최동호 교수



학술 부문 박현수 교수

최동호 "용맹정진하리라 결심"

박현수 "상 의미 깊이 새기겠다"

했다.

심사위원들은 "박현수 교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언어의식을 한 차원 높여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 이를 통해 시집 <님의 침묵>에 담긴 오묘한 시적 함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논문은 만해 한용운의 <심현담주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고

균형감 있게 수립하고, 그러면서도 만해의 언어관과 시 사상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수상이란 어떤 의미에서 시인의 모욕이자 관심의 매듭이다. 이 상을 계기로 평소 무관심하던 여러 시인이 수상자의 자격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에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전달된다. 정혜숙 기자

경주 불국사 라오스 학교건립 후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불국사 자원봉사단(대표 종상)은 5월 22일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라오스 논길레 불국초등학교 교실 신축 내용을 담은 후원 협약식을 맺었다. 논길레 불국초등학교는 6월 기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이 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양영자 씨, 동국대에 3000만 원 기부



독실한 불자가 종립 동국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3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불교경영최고위과정에 재학 중인 양영자 씨는 5월 29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향후 2년 간 2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양영자 씨는 "김희옥 총장님 취임 후 동국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고 들었다"며 "종립 동국대가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 많이 배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우면 복지관 한마음 축제 행사 열어



가정의 달 기념 산과 함께하는 우면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운)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면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삼성물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동 대학 옷놀이대회, 락메 치기, '추억의 제기방'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지역주민 장기 자랑 '우면스타킹'이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일주문



순국선열 추모대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6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하동 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7월 25~30일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실시한다. (055)883-1901



백양사 참사람 법회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6월 4~25일 매주 화요일 '참사람의 향기,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참사람 법회를 개최한다. (061)392-7502



故경허 선사 101주기 대례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6월 3일 수덕사 대웅전에서 故경허 선사 열반 101주년 대례제를 봉행했다.



천안 구룡사에서 사경대법회

서울 법화정사 회주 도립 스님은 6월 8일 천안 구룡사에서 사경대법회를 봉행한다. (02)928-1331

"문수 스님 유지 받들겠습니다"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3주기 추모제



문수 스님 소신공양 3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후, 이하 불시넷)가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5월 31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함께삼시다! 생명평화의 한반도에서'를 주제로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 대화마당, 생명평화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모사에는 김경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광 스님, 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생명

환경분과 엘리사벳 수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퇴후 스님 등이 참여해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뜻을 기렸다. 추모대화마당에서는 방송인 오한숙씨 씨의 사회로 △도법 스님 '한반도의 생명평화' △지울 스님 '4대강의 합리적 복원' △성원 스님 '문수 스님의 유지 계승' 등을 주제로 대화시간이 진행됐다. 행사는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촛불걷기명상으로 마무리됐다. 정혜숙 기자

"각계 힘 모아 순국선열 기릴 것"

호국영령 순국선열 위령제 여는 연화 스님



"매년 현충의 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얼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 위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진흥회가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8일 서울 현충원에서 제2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를 개최한다.

이날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화장 원주 연화사 주지 연화 스님은 "예로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불교가 이 나라를 지키고자 앞장 섰다"며 "이러한 불교계의 활동을 기리고 순국

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활동을 활발히 펴겠다"고 이번 위령제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진흥회는 유관순 여사의 아우네 장터, 한국전쟁 격전지인 낙동강 일대에서 위령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영산당 일공 스님을 법주로 고명, 법해, 은곡, 효진, 도선, 원덕, 월암, 범몽, 법성, 청은, 성관, 해월 스님 등이 참여한다. 스님들은 종단을 초월해 호국불교 정신을 살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연화 스님은 "우리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원용화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호국불교 정신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공 고

1. (사)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 의결 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는 2013. 5. 13 제 18대 임시 중앙총회 회의를 개최하여 (혜륜스님은 혼인관계 도중에도 종단 소속 비구니 스님과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는 등, 종단의 위신이 추락되게 한 점, 종도에 대한 공갈협박 전과사실 등) 혜륜(김용대)스님의 총무원장 직위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 하였으며, 보광(이학관)스님의 중앙총회 의원자격에 대하여 징계(제적의결) 하였는바, 이를 공고 합니다.

2. 직인무효 및 변경공고

상기 1항에 따라 총무원장 및 중앙총회의장의 직인을 변경 하였으므로, 전)총무원장 및 전)중앙총회 의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변경된 총무원장 서리 직인

변경된 중앙총회 의장 직인

2013. 5. 20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승헌 (이재일)

(사)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 의장 수성 (임채곤)

공 고 문

1.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 의결 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는 2013. 5. 13 제 18대 임시 중앙총회 회의를 개최하여 (혜륜스님은 혼인관계 도중에도 종단 소속 비구니 스님과 성관계를 하는 등, 종단의 위신이 추락되게 한 점, 종도에 대한 공갈협박 전과사실 등) 혜륜(김용대)스님의 총무원장 직위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 하였으며, 보광(이학관)스님의 중앙총회 의원자격에 대하여 징계(제적의결) 하였는바, 이를 공고 합니다.

2. 직인무효 및 변경공고

상기 1항에 따라 총무원장 및 중앙총회의장의 직인을 변경 하였으므로, 전)총무원장 및 전)중앙총회 의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변경된 총무원장 서리 직인



변경된 중앙총회 의장 직인



2013. 5. 20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승헌(이재일)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 의장 수성(임채곤)

